'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후원 협정 체결

←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상 명예회장, 김해성 목사, 최병수 회장, 이완주 원장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국 땅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에게 소중한 근로자입니다. 그들에게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도적인 활동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좁은 복도, 후원 협약식을 지켜보고 있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최병수 회장은 짧게 소감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1월 3일, 최병수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10여명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을 방문, 물품과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후원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한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시설을 둘러보며 입원실에 입원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세계 최초의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건설현장에서 못에 발바닥을 찔렸지만 바로 치료를 받지 않아 파상풍으로 번진 외국인 근로

↑ 물품과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후원 협약서를 꼼꼼히 확인, 서명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외부 전경,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2,3층을 사용하고 있다.

자나 배가 아픈데도 진통제로만 견디다 급성 맹장이 복막염으로 악화되어 숨진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으로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지만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일반병원 진료는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은 김해성 목사와 서울 방배동에서 23년 동안 소아과 의원을 운영해 오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원장을 맡고 있는 이완주 원장의 노력으로 2004년 7월에 개원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퇴근 후 시간에도, 일요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의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내과, 정형외과, 한방 등이며 30병상 규모의 입원실, 약국, 수술 의료기, X레이 촬영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의사, 간호사, 방사선 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상근 직원 22명, 7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외래환자 19,826명, 입원환자 314명으로 20,140명, 2만여 명 외국인근로자를 무료로 진료하다보니 많은 후원자가 돕고 있지만 2억 5000만원 가량 적자가 났다고 한다. 협회와 같은 후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수 회장과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대표 김해성 목사가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도 협회의 의무

한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수는 58만 8073명(2004년 통계), 그중 합법 체류자는 37만 9000명, 불법 체류자는 20만 9037명이다. 이들 외국인근로자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부분 3D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들 외국인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협회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가 전해준 꽃다발에 최병수 회장은 쾌유를 기원하며 서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대해 기쁨의 말을 전했다.

일단, 37만 9000명의 합법 체류자의 경우는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를 해오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근로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 현 상황에서 '춥고 배고픈데다가 아프기까지 한 불쌍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협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을 후원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땀 흘리며 일하는 선량한 근로자라는 것이다.

협회는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후원 체결로 '산업보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며 근로자 건강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며 외국인근로자와 더불어 성숙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